

삼성전자, 07년형 '업그레이드' 은나노 드럼세탁기 출시

삼성전자는 은나노 살균·항균 기능을 기존 세탁과정 외에 행굼, 불림과정에도 채택한 2007년형 하우젠 은나노 드럼세탁기 20여종을 출시한다고 10월 26일 밝혔다.



출시되는 제품은 △아기옷, 운동복 등 세균·곰팡이에 취약한 세탁물을 위한 '은나노 파워항균' 코스 △이불, 커튼 등 때가 잘 빠지지 않는 세탁물에 적합한 '은나노 불림세탁' 코스 △세탁조 곰팡이 발생으로 인한 악취를 막아주는 '은나노 통세척' 코스 △모직의류를 위한 '울세탁' 코스 등 세탁물 종류에 따라 10개 세탁코스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울세탁' 과 관련해서는 국제양모사무국(WS)이 옷감 손상이나 줄어듦이 없다는 것을 인증하는 울마크를 국내 처음으로 획득, 안심하고 세탁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올 초 첫 선을 보인 후 호평을 얻고 있는 에어워시 기능을 전 제품군에 적용, 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옷에 땀 냄새와 먼지, 진드기, 세균을 제거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불림세탁을 하거나, 세탁이 끝난 후 추가로 행구는 소비자들이 많아 이를 제품에 반영했다"며, "2007년형 세탁기는 은나노 살균·항균 시스템을 세탁에서부터 불림, 행굼까지 세분화해 다양한 세탁코스를 선택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LG전자, 디오스 빌트인 스페셜 라인 출시

프리미엄 가전 전략을 구사하는 LG전자가 '디오스 빌트인(DIOS Built-in)' 최고급 모델을 출시했다.



LG전자는 디오스 빌트인 중 최고급 모델인 스페셜 라인을 출시하고 10월 2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한국전자전에서 첫 선을 보였다.

출시된 디오스 빌트인 스페셜 라인은 냉동/냉장고, 전기오븐레인지, 고급형 후드, 식기세척기, 복합식 전기 호브, 와인 셀러 등 6개 품목으로 구성, 사용자 편의와 안전성을 높였다.

냉동/냉장고는 냉장고와 냉동고를 양문형 냉장고처럼 붙이거나 따로 배치할 수 있으며, 수입제품과 달리 간접냉각방식을 채용해 성애가 끼지 않는다.

처음으로 빌트인가전에 포함된 후드는 유체가 곡면을 따라 흐르는 코안다 효과를 적용해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나 냄새가 후드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집진 성능을 높였다.

LG전자 이상규 DA마케팅팀장은 "소득수준 향상 및 주거공간의 리모델링 수요가 증가하면서 빌트인 가전도 고급화, 대형화되는 추세"라며 "소비자 요구를 반영해 다양한 빌트인 가전제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토닉스, 초박형 피킹센서 출시

오토닉스는 두께 10mm의 초박형 피킹센서(BWPK 시리즈)를 출시했다.



피킹센서는 영역감지용 포토센서인 에리어 센서의 일종으로 작업 공간에서 부품을 꺼내는 걸 감지하거나 조립라인에 부품이 도착하는 것을 감지하는 용도로 쓰인다.

이 제품은 자체 개발한 프레넬 렌즈와 플라스틱 케이스를 적용해 10mm 두께의 초박형 디자인으로 공간 제약을 최소화했다.

프레넬 렌즈란 구면렌즈와 같은 작용을 하도록 여러 겹으로 굴절을 만들어낸 렌즈로 초박형 피킹센서의 핵심기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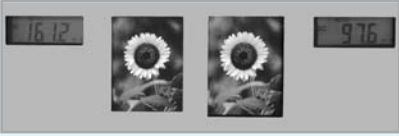
이 제품은 또 검출거리 설정시 스위치로 측정 거리를 정하도록 했고 투·수광기의 동기선을 제거해 간편한 배선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박환기 사장은 "투광주파수의 상호간섭 방지 기능으로 동급 최고 수준의 검출 신뢰성을 실현했다"며 "외산에 비해 절반 정도의 획기적인 가격과 제품 라인업의 강화로 외산제품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G이노텍, 고휘도 저전력 2.2인치 LCD모듈 개발

LG이노텍은 새로 개발한 LCD가 기존 제품에 비해 전력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도록 했다.

LG이노텍은 최근 400nit이상의 고휘도이



면서 기존 제품 대비 소비전력을 평균 50% 수준으로 낮춘 휴대폰용 2.2인치 QVGA(320x240) LCD개발에 성공했다고 10월 16일 밝혔다.

이번 2.2인치 QVGA LCD는 LG이노텍이 자체 개발한 고효율 LED 및 BLU(Back Light Unit)기술을 적용, 실외에서도 선명한 화질을 자랑한다.

이 제품은 어두운 화면에서 빛의 세기를 줄이는 등 신기술을 접목, 전력사용량을 최소화했다. 이 회사는 내년 1월부터 1.48mm두께의 2.0인치, 2.4인치 QVGA LCD등을 비롯한 모든 휴대기기용 LCD에 이 기술을 확대 적용해 양산할 계획이다. 회사측은 "고휘도·저전력 LCD는 일반 휴대폰 사용자 뿐만 아니라 장시간 스포츠 중계나 영화 등을 즐기는 DMB폰 매니아들에게 특히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제이씨현시스템, 리니지II 스피커 출시



제이씨현시스템(대표 차현배)은 온라인 게임 리니지II 디자인을 채택한 스피커 '아이트리거 200 리니지II'를 출시한다고 10월 26일 밝혔다.

엔씨소프트와의 계약에 따라 출시되는 이번 스피커는 균형잡힌 사운드 재생을 위해 네오 티타늄 드라이버를 사용했으며 투명,

그린, 블랙 3가지 색상을 교체, 사용할 수 있다. 구매를 원하는 고객은 리니지II 홈페이지(<http://www.lineage2co.kr>)를 참조하면 된다. 제품 출시를 기념, 제이씨현은 다음달 30일까지 특별할인가로 시장에 공급하며 리플 이벤트 참여 고객을 대상으로 최신형 MP3 5.1 채널 스피커, 헤드폰, 마우스 등을 추첨을 통해 증정한다.

팬택계열, 블랙컬러 단말기 출시



팬택계열이 10월 25일 지난 달 화이트 컬러로 출시했던 '스테미나 뮤직폰(모델명 IM-U130)'의 블랙 컬러 모델을 선보였다. 바타입 MP3 전용

폰인 IM-U130은 20시간 연속 재생이 가능한 MP3 전용 512MB 메모리를 탑재했고 강력한 쉉크박스 기능을 지원한다.

신개념 '수소+배터리' 연료전지시스템 개발



수소연료전지와 배터리를 모두 사용하는 신개념 하이브리드 소형 연료전지시스템이 개발됐다. 노트북이나 휴대형 전자기기에서 재충전없이 10시간 이상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나노표면기술팀 한

명근 박사가 노트북 등 휴대형 전자기기와 군사용 이동장비에 재충전 필요 없이 10시간 이상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소형 휴대형 연료전지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고 10월 24일 밝혔다.

소형 연료전지란 휴대폰, 노트북 컴퓨터 등에 사용되는 출력 100Wh 이하의 연료전지시스템을 말한다. 생키원이 개발한 장비는 기존 노트북에 사용하는 배터리의 경우 2~3시간 마다 교환해야 하고 배터리 충전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극복했다.

한 박사팀이 개발한 소형 연료전지시스템은 수소화붕소나트륨 화합물의 가수분해 방식을 이용한 수소발생장치와 연료전지 스택·전력관리시스템 등으로 구성되며 수소연료전지와 배터리를 모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사용했다.

유니텍전자, 주기관 5종 신제품 출시



유니텍전자가 3개 AMD CPU 지원 제품 등 주기관 신제품 5종을 출시했다.

'GF6100V AM2 그린'은 엔비디아 '6100-400' 칩셋을 탑재해 AM2 CPU를 비롯한 다양한 AMD CPU를 지원한다. 또 DDR2 800·667·533·400 규격의 메모리를 듀얼 채널로 최대 2GB까지 사용할 수 있다.

'K8M800 AM2그린'은 비아 K8M800 칩셋을 장착했고 듀얼 픽셀 파이프라인과 128비트 3D 엔진 그래픽 코어를 내장, 강력한 그래픽 성능을 보여준다. 이번에 유니텍은 'I945G 그린', 'I865G M7 그린' 등 인텔 CPU를 지원하는 주기관 2종도 내놨다.